

번역은 작가와의 대화

최윤정_번역문학가, 아동문학 평론가

이 글 청탁을 받고 계산해 보니 번역을 시작한 지 햇수로 15년이 된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 많은 시간을 번역과 함께 보냈는데 과연 나는 그만큼 좋은 번역자가 되어 있는 걸까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그런 물음은 곧장 내가 번역가로 지내면서 느껴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1987년 12월, 5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늘 별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독한 패배 의식에 시달려야 했다. 그 시절에 블랑쇼를 붙들고 번역하겠다고 나섰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오기나 도전의식 같은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도 난해하기로 이름난 블랑쇼를 붙들다니.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서도 일단 시작하고 볼 만큼 용감했던 것은 젊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요즘 같으면 어렵없는 일이지만, 나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그 책을 번역출판하겠다는 한국 출판사도 알아보지 않고 그 두꺼운 《미래의 책》을 무턱대고 번역했다.

그 책에 대한 감회는 내게 각별하다. 《미래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출판저널〉에 서평이 실렸었는데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서평자가 예외적으로 번역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어리벉벉하면서도 나는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아무도 내게 번역을 의뢰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대답이 궁색해서 힘들었다. '번역가'는 출판계 사람들이나 알 만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책을 열심히 번역해도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번역가 이름은 항상 작가 이름 뒤에 가려져 있었다. 자연히 내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있다는 열패감에 오래 시달렸다.

그런 내가 번역가라는 직업에 새롭게 눈뜨게 된 것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번역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였다. 그 장학금 덕분에 남프랑스의 아를르에 있는 세계 문학번역가 연구소에 가서 일할 수 있었는데 가장 편안한 것은 번역가끼리 모여 있다는 사실이었고, 우습게도 어느 나라에서나 번역료는 아주 적고, 번역가들은 그늘에 가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느끼는 위로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그 시절,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열 명 남짓한 세계 각국에서 온 번역자들에게서 나는 다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동질감을 느꼈다. 분명히 '우리'였다) 서로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무엇보다도 내게 안정을 주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던 나는 프랑스 말을 한국



더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번역하는 것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보다

나는 이런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속도감이 나기 때문이다.

거짓말처럼 가뿐하게
 일단 작가의 호흡에 실리고 나면
 즐다리기 같은 것이 진행되는데,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작가의 문체에

는, 이 세상에 살아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 끝없이 상대를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그건 무한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아주 다른 책을 번역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숨을 고르곤 한다. 지금은 어린이책을 번역하기 때문에 훨씬 쉽기(?)도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작가들과 직접 대화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번역의 문체가 원문의 문체를 배반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된다.

작업을 시작하면 나는 시작 부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편인데 작가의 호흡에 나의 호흡이 실리기까지는 언제나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 같다. 내 경우는 이 점이 언제나 관건이다. 작가의 문체에 나의 문체가 실리기까지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즐다리기 같은 것이 진행되는데, 일단 작가의 호흡에 실리고 나면 거짓말처럼 가뿐하게 속도감이 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보다 번역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쓸 때마다 나는 매번 그 글이 어디로 갈지, 마감일까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언제나 작가만 믿는다. 작가를 따라가면 길은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것이다. 돌이켜보니 우습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놓다니! ☘

말로 옮기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었고, 그건 다른 모든 번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건 아주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냈던 다섯 달 동안 내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바로 '번역'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잡고 있던 책은 바타이유의 《문학과 악》이었는데 바타이유도 불량 쇼만큼 난해한 작가였던 것이다. 작가의 사유를 따라가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파고들다 보면 하루 종일 매달려도 작업량은 몇 페이지가 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느릿느릿 작업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번역이 내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자기자신과 대화하는 일이라면 번역한다는 것은 그 글을 쓴 작가와 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작가라는 '타인' 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